

봉사하는 인항인



교감 민 병 준

3년간 형설의 공을 쌓고 교문을 나서는 자랑스러운 제2기 인항인(仁港人) 여러분의 졸업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날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문하였던 나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봉사하는 인항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서해안 제일의 인천항 부두에서 40여년 전부터 극히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묵묵히 수출의 역군으로서 하역(荷役)업무에 책임을 다하여온 근로자 4,000여 명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마음껏 배우지 못한 한(恨)을 결코 후손에게만은 물려줄 수 없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한 임금과 힘겨운 노동이지만 이와 같은 하역업무도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근로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사회에 보은하여야 하겠다는 숭고한 생각으로 노임의 일부를 모아서 학교를 세워 인천 지역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이 교육기관이 다름아닌 근로자가 세운 세계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인 여러분의 영원한 모교 인항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본교는 이분들의 숭고한 건학정신을 살려 봉사(奉仕)를 교훈의 한 덕목으로 삼아 인항인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은 사회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도움을 받는 것도 고맙고 기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것, 즉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그 몇 배 보람있고 흐뭇하며 기쁘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기주의의 팽배로 메말라 버린 우리 사회를
사랑이 넘치고 봉사가 지상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옛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최대의 노력을……

그 옛날 예의 바르고 매사에 보은(報恩)할 줄 알며 가정과 국가, 그리고 정의
를 위해서는 희생도 불사함을 미덕으로 삼았던 우리 사회가 오늘날과 같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모한 것도 사랑과 봉사 정신의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민족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는 나보다는 남을, 나의 가정보다는 남의 가정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회
봉사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님을 도와드리는 것은 곧 효이며,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며 따뜻하게 도와주는
것은 사회 봉사인즉, 우리 인항인들이 봉사 활동에 맨 앞장서서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심은 각박해지고 인정은 메말라 버린 우리 사회를 사랑이 넘치고 봉
사가 지상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옛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 사회는 어느 책의 표제와 같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으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 공간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 가운데 혹 진학이나
취업이 뜻대로 되지 못한 인항인이 있다면,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
고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자세로서 칠천팔기(七顛八起) 굳건하게 인생
항로를 헤쳐 나가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문이나 연구는 평생 지속되는 것이요, 끝이 없는 것이기에 졸업은
학문의 단계를 깊이하는 계기요, 또 학문의 폭을 넓히는 계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항인 여러분은 평생 교육의 자세로 면학과 연구에 힘써서, 우
리 사회 어디서나 언제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리라고 믿으면서,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